

충남 철강산업의 내일을 위한 준비

저자 _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전후방 연관효과가 가장 높은 대한민국의 기반산업’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은 철강공업육성법(1970~1986)에 힘입어 일관제철소 건설을 필두로 철강산업의 양적·질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철강생산은 1973년 약 50만톤 수준이었으나 포스코의 포항제철이 완공되면서 124만톤으로 늘었고, 1981년에는 1천만톤을 돌파했다. 1980년대에는 광양제철소의 완공과 함께 2천만 톤을 돌파하였고, 1990년대에는 전기로 제강 설비가 대폭 늘어나면서 철강생산이 빠르게 늘어나 2000년에는 4천만 톤을 넘어섰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충남 당진 현대제철의 일관제철업에의 신규 진입과 동부제철의 전기로제강 설비의 신설로 국내 조강생산은 2012년 역대 최대인 6,907만 톤에 이르게 되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POSCO(세계 6위), Hyundai Steel(세계 18위)이 세계 주요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worldsteel.org). 이러한 철강산업은 산업 자체적인 성장도 있지만, 타 산업과 연관성이 높아 철강산업의 발전은 다른 산업과는 차별화될 정도로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발달하게 된 철강산업은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기반산업이자 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산업이라 할 수 있다.

구분	철강*	섬유	화학	기계	전자	건설
전방효과	1.658	0.847	1.882	0.882	1.032	0.685
후방효과	1.379	1.113	1.089	1.152	0.922	1.071
총연관효과	3.037	1.960	2.971	2.034	1.954	1.756

주 *: 선철·조강과 철강1차제품(비철금속 제외)의 계수를 총투입(산출)액으로 가중평균
자료: 국내 철강산업의 여건변화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시사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007

‘생산과 수요기반의 새로운 철강거점으로의 도약’

충남의 대표적인 철강기업들은 당진 철강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북부권에 집적되어 있다. 충남지역내 생산되는 철강의 대표적인 수요산업으로는 자동차 산업과 건설산업을 들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은 충남북부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산만 인근의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을 포함해 연 200만대 이상의 생산을 하고 있어 조선산업과 해양플랜트 산업이 없는 충남의 철강산업에 있어서는 가장 큰 수요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제철에 있어서도 전세계 철강의 공급과잉하에서 당진 지역에 일관제철 설비 및 고로 확장 등의 신증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도 내수시장에 기반한 제철·철강재 설비의 수직적 계열화를 통한 효율성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충남은 전체제조업의 40%에 해당하고 있는 산업군이 전기·전자부품이다. 최근의 전기·전자제품에

감성형·고급형 철강제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철강제품의 수요량도 점차 확산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 충남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수도권의 건설·건축 등의 직접적인 수요와 함께, 경기·인천 중심의 발달된 제조업에 철강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요인으로 당진을 중심으로 철강산업이 집적·발전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충남의 미래를 결정한다.’

충남은 국내에서 가장 최근에 집적화되기 시작한 철강산업 집적지로서 도로, 항만 등의 양호한 SOC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수요처인 동시에 철강수요기업이 소재한 수도권과 인접한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산업이면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정책적인 육성·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철강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공급과잉 국면에 접어들었고, 대부분의 철강업체도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고 있어 새로운 전환점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남 철강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몇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첫 번째는 생산 지원, 유통물류지원, 연구지원, 인력 공급 등의 산업생태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재를 제외한 소재수급, 부산물처리 등을 근거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자원순환형 철강산업단지의 조성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최근의 철강재 고급화와 결부된 품질인증이다. 저가 중국 철강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강산업에 대한 품질 인증이 필요하고, 고부가가치화된 고급철강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철강산업을 포함하는 금속·소재 전반의 신뢰성인증센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뿌리산업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기업간, 산학연간 공동협력 및 연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강산업은 산업내 소재공급과 소재 가공산업으로, 그리고 철강수요산업으로 다양한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계를 통해 기술개발과 고급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1차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부품, 최종수요 산업과의 동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맞춤형 정책지원시스템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철강산업 발전의 결과물이 지역과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과 지역주민의 참여 없는 산업집적지는 그저 공장지대일 뿐이다.

★충남, 새로운 철강거점으로 성장하다.

■ 내수 수요에 힘입어 충남의 철강산업은 성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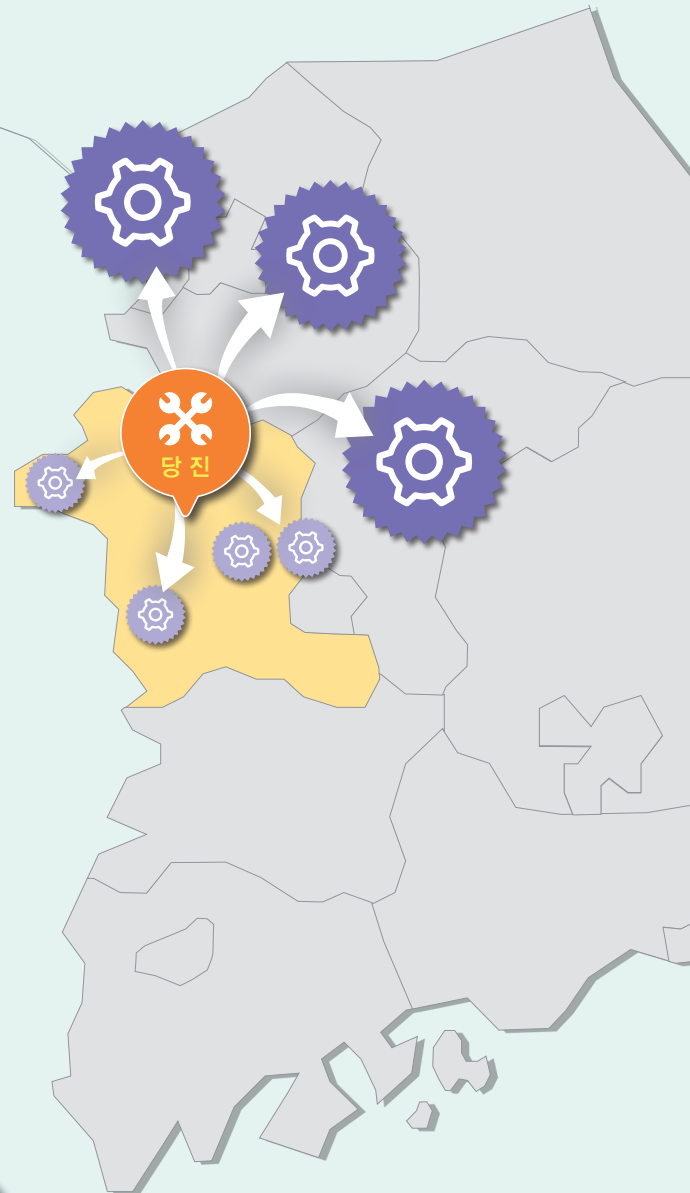
철강수요산업 집적지

- 서울, 경기 등 인근 시도의 철강 수요 존재
-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도내 철강 수요 풍부

철강산업직접지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등)

■ 충남도내 철강기업의 성장잠재력 우수(144개기업)

기술 선도형			3개	7개	
기술 추격형	6개	9개	16개	1개	
기술 반응형	5개	2개			
단순 생산형	24개	52개	13개	4개	2개
	창업단계	성장보육단계	자립성장단계	성숙단계	정체단계



★철강산업의 미래를 위한 준비운동을 시작하자.

